

and thus giving him the last opportunity to show his full trust in Him.

Fourth, just as Abraham started his spiritual journey by hearing/obeying God (Gen 12:4a), so he climaxes the journey by hearing/obeying God's voice (22:18b; cf. 26:5a). Because of his decisive obedience of faith, God renewed the covenant with Abraham, the promises of which are wider and more specific by far than before (22:15-18).

Last but not least, the Aqedah of Genesis 22:1-19 is essentially the story of God, who by testing Abraham revealed the genuineness and fortitude of his faith, and also lovingly disciplined Abraham for his sins of disbelief, redeeming him with a sacrifice.

Key words

Aqedah

Abraham cycle

theodicean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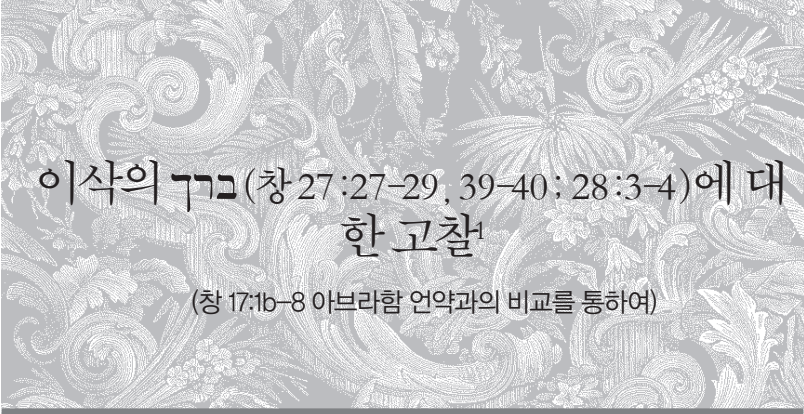
covenant-centered chiasmic structure

covenant renewal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



모창조(서울기독대)

1. 들어가는 말

창세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이삭의 바라크 사건이 나타나 는 창세기 27장 1절-28장 4절은 흔히 야곱 이야기라는 단락 속에 들어 가 있다.<sup>3)</sup> 이 부분은 궁켈(Herman Gunkel) 이래 많은 성서학자들의 흥

1) 본 논문은 필자의 2013년 2월 15일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창세기 27:1-28:4의 바라크(בֶּרֶךְ) 연구" 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비교 구절로 제시한 창세기 17장 1b-8절에서는 바라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엘 사다이로 나타나신 아웨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 속에는 이전에 12장과 15장에서 약 속되었던 땅과 후손에 대한 내용이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나오고 있으며, 사라(17:16)와 이스마엘 (17:20)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라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이후로 이삭과 야 곱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구절로 사용하였다.  
3) 여기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다. 렌스버그(G. A. Rendsburg)는 25:19-35:22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며(G. 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53-4), 폰 라드(G. von Rad)와 웬햄(Gordon J. Wenham)과 월트키(Bruce K. Waltke)는 25:19- 35:29까지(폰 라드, 「국제성

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4)</sup> 문헌 비평적 시각에서 본문을 대하는 학자들은 야곱 이야기를 구성하는 자료층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 자료층의 종류와, 그것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궁켈은 ‘창세기 27장 1절-28장 44절’이 속한 ‘창세기 25장 19절-36장 43절’을 야곱과 관련된 4개의 자료층 가운데 야곱과 에서에 관한 자료로 분류하였다.<sup>5)</sup> 그는 4

개의 자료층을 가진 짧고 간결했던 민간전승(folklore)이 야웨<sup>6)</sup>문서 기자(J)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로 엮여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7)</sup> 이에 비해 노트(M. Noth)는 전승사적 시각에서 성소가 있었던 ‘세겔과 벨엘에서 전승되던 야곱 이야기’에 요르단 동부에 존재하던 ‘야곱-에서라반에 관한 민간전승’이 더해지고, 거기에 요르단 서부에서의 ‘이스라엘 지파 조상의 탄생 이야기’와 ‘브니엘의 위험한 밤의 악마에 대한 고대 장소 민담’등<sup>8)</sup>의 다양한 전승들이 모여서 지금과 같은 야곱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겔과 벨엘이라는 특정 성소(cult site)와 관련되었던 족장설화가 ‘형제간의 갈등 이야기’(tale of rivalry)를 기초로 한 세속적인 서사시로 발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창세기 25장 19절-36장 43절의 주제가 ‘도망과 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안에 3개의 갈등이 있다고 보았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사이에 야곱과 라반,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삽입되어 있고,<sup>10)</sup> 야곱-에서 이야기를 사냥꾼과 목자(또는 농부)의 대결로 보고 있다. 베스터만은 이 이야기가 머리 회전이 빠른 한 목자가 거칠고 어리석은 사냥꾼을 농락하면서 그에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sup>11)</sup> 이는 족장사의 전개에서 ‘생계로서의 사냥이 농경에 자리를 내어주는’, 사냥꾼으로서의 삶이 그 의미를 상실해 가

서주석 창세기 1』(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92, 381. 원제는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s, 2001), 373; 고든 웬햄, 「WBC 창세기 16-50」(윤상문/황수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325. 원제는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Waco, Texas: Word Books, 1987); 베스터만(C. Westermann)과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25:19-36:43까지(클라우스 베스터만, 「창세기」(강성열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8), 264. 원제는 C. Westermann, *Genesis* (J. H. Kok Publishers, 1986);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204)로 보고 있다.

- 4)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C.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Devora Steinmetz, *From Father to Son: Kinship, Conflict, and continuity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G. 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George W. Coats,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FOTL I. (Grand Rapids: Edermands, 1983); J. P. Fokkelman, *Narrative Art in Genesis*, (Assen: The Almond Press, 1975); Il-Seung Chung, *Liberating Esau: A Corrective Reading of the Esau-Jacob Narrative in Genesis 25-36*,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2008); L. Brisman, *The Voice of Jacob-On the Composition of Genesis*,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Naomi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3), 87-114;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9); Ronald, S. Hendel, *The Epic of the Patriarch-The Jacob Cycle and the Narrative Tradition of Canaan and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Atlanta Georgia: Schoars Press, 1987); David W. Cotter,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3); Terence E. Fretheim, "Which Blessing Does Isaac Give Jacob?," in *Jews, Christians, and the Theology of the Hebrew Scriptures*, Edited by Alice Ogden Bellis and Joel S. Kaminsky, SBL Symposium Series 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창세기의 현대적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王大일, 「다시 읽는 야곱 이야기[창 25:19-36:43]: 그 구조와 의미」, 「구약논단 제4집」(1998년 봄), 5-40; 김재규, 「야곱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제31집 (2009년 3월); 유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제23집 (2007년 3월), 101-117; 정석규, 「구약성서로 읽는 갈등과 화해」(서울: 한들출판사, 2010).
- 5) H. Gunkel, *Genesis, uebersetzt und erkaert*, HKA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3rd ed., 1910), 266-268. 재인용,王大일, 「다시 읽는 야곱 이야기[창 25:19-36:43]: 그 구조와 의미」, 6-7.

- 6) 본 논문에서 'יהוה'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음역이나 직접적인 인용에 있어서는 '야웨'로, 성경을 인용할 때는 '여호와'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으로 지칭할 것이다.
- 7) 윗글, 6-7.
- 8) 마틴 노트, 「오경의 전승사」(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112-14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W. Kohlhammer GmbH., Stuttgart, 1948).
- 9)王大일, 윗글, 8.
- 10) 베스터만, 윗글, 264. 이 외에도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Steinmetz, 윗글;王大일, 윗글, 5-40; 그 구조와 의미」, 5-40; 정석규, 윗글, 147-192.
- 11) 베스터만, 윗글, 270. 이와 같은 견해는 궁켈(H. Gunkel)이 먼저 제시한 것이며, 노트(M. Noth)도 궁켈을 인용하여 이에 동의한다. H. Gunkel, *Preussische Jahr-buecher* 176 (1919), 357. 재인용, 노트, 윗글, 137. 김이곤, 윗글, 155-6.

는 어떤 사회 인류학적인 진화과정을 증언하는 것으로 야곱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sup>12)</sup> 헨델(R. S. Hendel)은 야곱이야기를 그와 평행하다고 여겨지는 고대중동지방의 설화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sup>13)</sup>

최근의 연구자들 가운데 포켈만(J. P. Fokkelman)과 렌스버그(G. A. Rendsburg)는 문학비평적-수사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야곱이야기가 통일성과 균형을 갖춘 하나의 작품임을 밝히고자 하였다.<sup>14)</sup> 이들은 그동안 야곱이야기의 과거 행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통시적(通時的)인 방법에서 한발 나아가 야곱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공시적(共時的)인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야곱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가 주고받는 갈등(25:19-34; 27:1-45; 27:46-28:9; 32:3-21; 33:1-17)이라는 중심주제 속에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29:1-30; 30:25-31:55)가 삽입되고,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이야기가(28:10-22; 32:1-2, 22-32) 추가됨으로써 짜임새 있는 문학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인 이삭의 바라크 사건을 직접으로 다룬 학자는 프레데임(Terence E. Fretheim)과 정일승이다. 프레데임은 야곱에 대한 이삭의 바라크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고 했다.<sup>15)</sup> 하지만 그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일승은 특히 이삭의 에서에 대한 바라크 부분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아쉽게도 야곱에 대한 바라크에 대해서는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가장의 바라크라는

12) 왕대일, 윗글, 10.

13) R. S. Hendel, *The Epic of the Patriarch-The Jacob Cycle and the Narrative Tradition of Canaan and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Atlanta Georgia: Schoars Press, 1987), 33-98.

14) Fokkelman, 윗글, 86-236; Rendsburg, 윗글, 53-69. 왕대일도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왕대일, 윗글, 13.

15) Fretheim, 윗글, 282.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내용의 차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야곱에 대한 바라크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야곱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야곱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일정부분 공헌을 하고 있다. 통시적인 방법은 과거의 흔적만을 찾는데 몰두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반면, 공시적인 방법론인 문학비평적-수사학적 방법론은 야곱이야기에 대한 문학적 구조에 대한 지평은 크게 열어놓았으나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백으로 남겨놓았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이삭의 바라크 사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6)</sup>

창세기 27장1절-28장4절에 나타난 이삭의 '바라크'(בָּרַךְ, '축복') 사건은 전통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로 여겨져 왔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에서와 이삭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석학적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다.<sup>17)</sup> 그들에 의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으며 영적으로도 둔감한 자로 여겨졌다.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베푸는 바라크를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고자 함으로써 형제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에 리브가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에서에게 돌아갈 뻔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배

16) 이삭의 축복 사건을 단순히 형제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과,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는 첫 번째 바라크와 두 번째 바라크가 특별한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한다.

17) 이는 현대의 해석가들 뿐만 아니라 고대의 해석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제임스 쿠겔, 「고대 성경 해석가들이 본 모세오경」(김은호/임승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45-280. 원제는 James L. Kugel, *The Bible As It Wa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제임스 쿠겔, 「야곱의 사다리」(변순복/유지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25-49. 원제는 James L. Kugel, *The Ladder of Jacob*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푸는 바라크를 야곱이 받게 하는 신탁의 수호자로 옹호 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바라크가 베풀어지는 장면이 등장한다(27:27-29, 39-40; 28:3-4). 첫 번째는 야곱이 예서로 속이고 바라크를 받아 내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서가 바라크를 받는 장면이며, 세 번째는 형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바라크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다. 그동안의 해석은 야곱에 대한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27:27-29)와 두 번째 바라크(28:3-4)가 특별한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는 바라크라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베푸는 것과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삭은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는 바라크를 예서에게 주려고 한 어리석은 가장이 되었고,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 이삭의 바라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로 인식되었다.

본 논문은 이삭의 세 번에 걸친 바라크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궁켈이나 노트와 같은 과거지향적인 면에서 벗어나 본문을 하나의 완성된 최종형태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언약(창 17:1b-8)에 나타난 바라크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삭의 세 번에 걸친 바라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논하고자 한다. 필자의 제안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왜곡되었던 이삭의 바라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2. 창세기 17장 1b-8절의 바라크

본문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sup>18)</sup> 아브라함

18) 웬함은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한다. 웬함, 윗글, 102.

이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에게 처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言約)은 아직 요원하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아브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본문인 17장에서 13년 만에 자신을 ‘엘 샤다이’(אֱלֹהִים; lae)로 소개하며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언약을 한다.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 바라크가 주어질 때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27장 1절-28장 42절의 이삭의 바라크에 주어진 형식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바라크의 형식

#### (1) 바라크 수여의 주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지는 부분에서(17:1b-8) 바라크(בָּרַכְךָ)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와 본문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즉 번성하게 하는 것과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것이 바라크임을 알 수 있다.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바라크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창 28:3-4).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바라크라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본문에 바라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본문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라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사라(15-19절)와 이스마엘(20절)에게는 바라크를 베풀다고 말한다.

엘 샤다이는 창세기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하나이다.<sup>19)</sup> 이 호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나올

19) 이 호칭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윗글, 49, 92.

때는 언제나 앞서 나온다는 것이다(17:1; 28:3; 35:11; 48:3).<sup>20)</sup> 이 호칭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베풀어 준 두 번째 바라크에서 다시 이 호칭이 언급되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베풀어준다(28:3-4). 성서의 증거는 야곱이 집을 떠난 뒤로 그의 삶의 여정이 엘 샤다이와 함께 하는 삶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벧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면서 후손과 땅의 소유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 번 준다(35:11-12). 야곱은 베나민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엘 샤다이의 도움을 청한다(43:13). 처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관하였고, 아버지 이삭의 두 번째 바라크에서 주체였으며, 벧엘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엘 샤다이에게 언약의 후손들의 안위를 부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구절에서 그는 엘 샤다이가 자신에게 언약으로 주었던 말들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며 자신의 삶 전체가 엘 샤다이의 주관 아래 있었음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다(48:3-4).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시 모세에게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 샤다이라고 나타난 것을 밝히고 있다(출 6: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들과 또 그들의 후손에게 있어서 엘 샤다이는 때려야 떨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엘 샤다이가 하나님의 말의 첫머리에 등장함으로써 이후의 모든 언약의 내용 전부를 그가 직접적으로 세우고 이루어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17:1-22)에 등장하는 언약의 모든 내용의 주체는 ‘엘 샤다이’이다. 그는 언약의 주체로서 아브라함에게 바라크를 베풀

20)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에는 이 호칭이 전제 되지 않고 해설자에 의해 ‘아웨’로 소개 된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에게 바라크를 베풀 때 이삭은 ‘יְהוָה אֱלֹהֵי אַבְרָהָם’가 바라크를 베풀어 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יְהוָה אֱלֹהֵי אַבְרָהָם’로 나타났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삭에게 언약을 한 분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יְהוָה אֱלֹהֵי אַבְרָהָם’임을 알 수 있다.

풀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바라크를 베풀는 주체로 등장한다.

## (2) 동사 형태

엘 샤다이가 바라크의 주체로 나오는 문장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동사 ‘רָבָה’(라바/번성하다)와 ‘פָּרָה’(파라/열매를 맺다)의 ‘히필형’이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한 하나님은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면서 나타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언약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17장 2절에서 ‘번성하게 하리라’로 번역된 ‘אַרְבֵּה’ (아르베)의 동사의 형태는 ‘히필형’이다. 이 히필형 동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 곳에 어김없이 사용된다.<sup>21)</sup> 17장에서만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서 두 번(2, 6절),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에서 두 번(20절)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2절)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6절)라고 말하였다. 2절에서 ‘번성하게’로 번역된 ‘אַרְבֵּה’ (아르베)를 직역하면 ‘내가 많이 할 것이다’이다. 즉,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엘 샤다이로부터 주어진다. 이 의미를 살려 2절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넘치도록 번성하게 할 것이다”(사역, 창 17:2)가 된다.

6절의 ‘번성하게’로 번역된 ‘וְהִפְרִיתִי’ (버히프레이티)는 ‘פָּרָה’(파라)의 히필형이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이다. 즉,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2절에서 맞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 샤다이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라고 인하여 넘치도록 번성하게 되고(אַרְבֵּה,

21) C. M. Kaminski, "The Promises to the Fathers", in *Basics of Biblical Hebrew Grammar* Second Edition by Gary D. Pratico & Miles V. Van Pelt, Zondervan (Grand Rapids, Michigan, 2007), 353-354.

아르베), 매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וְהִפְרִיתִי, 버히프레이티). 이러한 히필형 동사는 “내가 네 후손을 ‘정녕 많게 할 것’(אֲרַבְּבָה אֶתְּחִילֶיךָ, 버히르바 아르베)이다”(창 22:17)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확인된다.<sup>22)</sup>

이후 히필형 동사는 이삭이 언약을 받는 장면에서 두 번(26:3-4, 24), 야곱이 언약을 받는 장면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두 번(28: 3; 48:3) 쓰임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과정에서 정형화 된 공식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히필형 동사를 사용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의 고백에서 히필 완료형 הִפְרִיתִי(히르바/번성하게 했다[신 1:10])를 사용함으로써 완성이 된다.<sup>23)</sup>

이와 같이 ‘엘 샤다이’와 הִפְרִיתִי · הִפְרִיתִי(라바 · 파라)의 ‘히필형’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해지고 확인 될 때마다, 또 그 언약 속에 들어 있는 ‘바라크’가 전달되어 지는 형식으로 언제나 함께 사용될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이후의 이삭의 바라크 사건을 비교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 2) 바라크의 내용

### (1) 후손(אֲחֵרֵי, 제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엘 샤다이’와 ‘히필형 동사’를 사용하여 첫 번째로 주어진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후손에 관한 것으로써 아브

22) 여기서는 הִפְרִיתִי(라바)의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 나란히 나오으로써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낸다.

23) 이 구절에서 ‘번성하게 했다’로 번역된 הִפְרִיתִי(히르바)는 הִפְרִיתִי(라바)의 히필 완료, 3인칭 단수형이다. 단순히 히필 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24) 엘 샤다이와 הִפְרִיתִי(라바)와 הִפְרִיתִי(파라)의 ‘히필형’이 함께 나오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창 35:11이다. 여기서는 הִפְרִיתִי(라바)와 הִפְרִיתִי(파라)의 ‘명령형’이 사용되었다. 명령형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모창조, “창세기 27:1-28:4의 바라크(ברך) 연구”, (서울 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28.

라함 언약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마엘이 있을 뿐이다. 엘 샤다이로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뒤로 오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후손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어졌으며(창 12:7),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그의 눈에 보이는 땅으로 확장되고 영원성이 부여된다(13:15). 더 나아가 그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13:6), 하늘의 별처럼(15:5)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뒤이어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식을 거행함으로써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언약이 된다. 지금까지 성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록하고 또 반복하였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써,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고 엄숙한 맹세를 통해 그 성취를 보장한다.<sup>25)</sup> 웬햄(G. J. Wenham)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은 창세기의 계속된 주제(15:5; 16:10; 28:14; 32:12)로써 이 약속은 미래를 깊이 내다 본 것이다’<sup>26)</sup>라고 말한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중심주제 가운데 하나인 후손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엄숙한 맹세의 언약으로 주어진 후손에 대한 언약은 본문인 17장에 와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로 구체화 되고 더욱 강화된다. 하나님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17:2),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17:6)라고 말한다. 이 두절에서 ‘크게’와 ‘심히’로 번역된 강력하고 반복적인 부사 הַרְבֵּה הַרְבֵּה(머오드 머오드)를 사용하고

25) 알렌 로스, 「창조와 축복」(김창동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451. 원제는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 (Michigan: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 1993).

26) 윌름, 526.

있다.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러한 언약은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것이다.<sup>27)</sup> 직접 후손을 낳을 ‘사래’도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그녀가 낳을 후손의 이름까지 정해진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녀가 낳을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질 것이 천명(闡明)된다. 생물학적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내년 이맘 때”(18:10a)<sup>28)</sup>로 새롭게 언약을 함으로써<sup>29)</sup> 후손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약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시기가 되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21:1-5).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들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일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 성취의 핵심은 세 번에 걸쳐 사용된 ‘그 말대로’, ‘그 말대로’, ‘말하신 시기가 되어’에 있다. 아들 이삭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삭의 출생은 사라를 위한 대 사건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더욱 진전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sup>30)</sup>

하나님의 언약대로 태어난 후손인 이삭은 위기에 처한다(22:2).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고 위기가 지나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다시 한 번 주어진다(22:17). 이 언약은 창세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보증하고

강화한다.<sup>31)</sup> 후손에 대한 언약은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점점 확장되어 왔다.

결혼 후 20년간 자식이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룰 것을 확인 시키며, 다시 한 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언약이 주어짐으로써(26:3-4) 후손에 대한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언약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함을 받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고(28:3-4), 하나님에 의해 보증이 되며(28:14; 35:11; 46:3), 야곱의 회상에서 확인된다(48:4). 더 나아가 이 언약은 이미 많은 후손들이 탄생한 이집트에서 성취가 되고(출 1:7), 모세의 회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신 1:10).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히필형 동사가 아니라 칼형 동사가 쓰였다. ‘생육하고’(וַיִּרְבּוּ, 파루,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וַיִּרְבּוּ’(파라)의 ‘칼 완료, 3인칭 복수형’으로써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번성하고’(וַיִּרְבּוּ, 바이르부, ‘그들이 많아졌다’)는 동사 ‘וַיִּרְבּוּ’(라바)의 ‘바브 계속법, 칼 미완료, 3인칭 복수형’으로 이미 많아졌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세의 회상에서는 과거의 언약을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히필형 동사 ‘וַיִּרְבּוּ’(히르바, 동사 וַיִּרְבּוּ[라바]의 ‘히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너희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처음 희미하게 주어졌던 후손에 대한 언약은 점점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지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출 1:7) 되었다. 엘 샤다이의 언약은 그의 사역(使役)으로 그 결실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 (2) 땅(אֶרֶץ, 에레쯔)에 대한 소유권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은 ‘땅’에 관한 것이다. 브루그만(W.

27) 월터 브루거만, 「성경이 말하는 땅」(정진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70.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2).

28) ‘내년 이맘 때’(וַיִּרְבּוּ תַּעֲבֹד, 카에이트 하야)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생명의 때’(KJV), 즉 다음 해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이 된다(참조, 공동번역, RSV).

29) 폰 라드, 윗글, 228.

30) 웬함, 윗글, 188.

31) 윗글, 243.

Brueggemann)은 창세기의 역사에 대해 “창세기는 땅과 관련된 두 가지의 역사로 되어 있다. 하나는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것으로 땅에 쫓겨나고, 땅을 상실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땅에 완전하게 근거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이다. 창세기의 또 다른 역사는 창세기 12-50장의 기록이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며, 땅에 대한 확실한 기대 속에 살고 있다.”<sup>32)</sup>라고 주장한다. 땅에 대한 확실한 기대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에 대한 언약이 있는 후 하나님은 땅에 관한 언약도 함께 제시한다(17:8). 땅에 대한 언약은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언급이 되고(12:1) 이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한다(12:7).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이 동시에 주어질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루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다시 말한다(창 13:15).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밝히는 이 구절은 그 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그 땅은 그와 그의 자손들도 받으며, 그 땅은 영원히 주어진다.<sup>33)</sup> 즉, 아브라함이 바라 본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유대 민족의 역사와 운명은 약속의 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

32) 브루거만, 76쪽, 61.

33)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임은 17장 8절과 48장 4절에서 재확인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은 희년법과 기업에 대한 율법을 알리는 전조가 된다(레 25:25-34; 민 36:5-9).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신명기의 중심주제이며(예를 들어, 창 3:18-21; 30:3-5).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그곳으로 귀환하리라는 예언적 소망의 토대가 된다(예를 들어, 렘 31:2-21). 고든 웬햄, 『WBC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523, 526. 원제는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exas: Word Books, 1987).

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sup>34)</sup>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에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15:8).<sup>35)</sup>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언약식을 거행한다. 이 언약식은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는 맹세 의식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한다.<sup>36)</sup> 그리고 그에게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명과 경계를 정하여 준다(창 15:18-21). 경계까지 확정된 땅은 본문(17:8)에서 ‘히필형 동사의 사용’과 ‘엘 샤다이’ 호칭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그동안 해설자에 의해 거론되었던 ‘가나안 땅’이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한다. 더욱이 그 땅을 ‘영원한 소유’(עֲוֹלָמִית, 아후자트 올람)로 주겠다고 함으로써 땅에 대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고 있다. 17:7에서의 ‘영원한 언약’(עֲוֹלָמִית בְּרִית, 버리트 올람)이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로 인도한다.<sup>37)</sup> 이제 그것은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말한 것을 말한 대로 이루는 분이 확실하게 보증한 것이다.<sup>38)</sup> 이 언약 역시 후손에 대한 언약과 같이 끊어질 위기를 겪는다.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땅의 위기도 같이 가져온다. 땅에 대한 위기는 시험이 통과된 후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 22:17)는 특별한 표현으로 새롭게 주어진다.

이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를 장사지낸다(23:16-20). 아브라함

34) N. M. Sarna,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91.

35)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 유효하다는 증거는 아주 빈약하며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에 땅은 강력한 가나안 도시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고, 전 사회체제는 대제국 특히 이집트의 패권 아래 놓여 있다. 가나안 변방에서 체류자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확신을 줄 수 없었다. 버나드 앤더슨, 『구약신학』(최종진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2002), 178. 원제는 Bernhard W. Anderson, *Contour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36) 한동규,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227.

37) 브루거만, 76쪽, 70.

38) 76쪽, 68.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그의 죽은 자를 묻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sup>39)</sup> 그것은 다만 작은 면적의 땅이지만 그와 같이 확실히 지켜진 땅, 이른바 '소유'(חֶקֶן, 아후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분명한 전조가 되는 것이다.<sup>40)</sup> 막벨라 굴은 하나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한 믿음이었으며<sup>41)</sup>,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며 그 땅 모두를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한다(26:2-3). 이 언약은 하나님의 택자인 이삭에 의해 야곱에게 주어지고(28:4), 하나님에 의해 보증이 되며(28:13-15; 35:12; 46:4), 야곱의 회상에 의해 확인된다(48:4).

하나님이 땅에 대하여 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봉토(封土)<sup>42)</sup>로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sup>43)</sup> 모세에 의한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와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진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으며<sup>44)</sup>, 가나안 땅에 대한 모세의 설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것이다(창 26:3). 시편 기자 역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시 105:7-11).

이와 같이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바라크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임을 알 수 있다.<sup>45)</sup> 이 두 요소는 하나님의

39) 원함, 『WBC 창세기 16-50』, 263.

40) 브루거만, 윗글, 74.

41) 원함, 『WBC 창세기 16-50』, 266-267.

42) 왕이 제후를 봉하여 땅을 내어 줌.

43) 부르스 윌트키, 『구약신학』 (김귀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374-5. 원제는 Bruce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44) 브루거만, 윗글, 80.

45) 노트는 족장의 몸에서 난 후손을 위한 번성과 영토 소유의 약속이 족장에 대한 전승의 기본 토대라고 말한다.

택한 자에게 언약이 전해질 때마다 필수 요소로 함께 주어질 것이다. 창세기 26장 3-4절의 이삭에게 주어진 바라크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 내용도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함으로써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으며, '후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출 1:7; 신 9:5).

### 3. 이삭의 바라크(창 27:27-29, 39-40; 28:3-4)

이삭은 두 아들에게 세 번의 바라크를 베풀어 준다. 첫 번째(27:27-29)는 원래 에서에게 의도되었던 것을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은 것이다. 두 번째(27:39-40)는 에서에게 차선으로 주어진 것이다. 세 번째(28:3-4)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풀어 준 것이다. 이 세 번의 바라크를 직접 베푸는 주체는 이삭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바라크와 세 번째 바라크의 형식(주체와 동사의 형태)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 내용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1) 바라크의 형식

(1) 27장 27-29절과 39-40절의 바라크 수여의 주체와 동사의 형태

##### ① 바라크 수여 주체

첫 번째 바라크(27:27-29)에서 바라크 수여 주체는 누구인가? 이삭은 에서를 위한 바라크를 준비하고 그에게 주고자 하였으나 에서로 위장한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주게 된다.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바라크라는 데에 이견을 가진 학

M. 노트, 윗글, 80.

자들은 거의 없다.<sup>46)</sup>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갈취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바라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스는 이삭의 바라크가 창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호의 축복을 반복하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합당한 아들에게 축복이 전해지게 하였다고 말한다.<sup>47)</sup> 로스의 주장은 두 본문의 차이를 간과한 해석이다. 웬함은 두 본문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1) 품사의 사용에 있어서 비인칭수 동분사형(축복을 받고 있는/저주를 받고 있는, 창 27:29)과 1인칭 주어(내가 축복하리라/내가 저주하리라, 창 12:3)를 사용한다는 점, (2) '저주하다'가 'אָרַר'(아라르/저주하다, 창 27:29)와 'קָלַל'(칼랄/경멸하다, 창 12:3)로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3) 복수형 분사(너를 저주하는 자들, 창 27:29)와 단수형 분사(너를 경멸하는 자, 창 12:3)로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48)</sup> 위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בָּרַךְ'(바라크/복)과 'אָרַר'(아라르/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아브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호와'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복과 저주의 주체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개인적이고 밀접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로스의 견해는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한 것이다. 27장 29절의 복과 저주는 12장 3절과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베스터만의 고대의 바라크의 개념을 27장 이삭의 바라크에서 찾는다. 그는 "아버지는 단 하나의 축복만 물려줄 수 있고, 되돌릴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함으로써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가 하나

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9)</sup> 베스터만의 주장은 창세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낸다. 야곱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병문안을 온 요셉과 그의 아들들(므낱세와 에브라임)에게 48장 전체를 통하여 바라크를 베풀어 준다. 이후 49장에서 형제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요셉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길게 다시 한 번 바라크를 받는다(49:22-26).<sup>50)</sup> 이는 베스터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이다.<sup>51)</sup> 만일 가장으로부터의 바라크가 단 한번만 주어지며, 되돌릴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요셉은 두 번째 바라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야곱도 주지 않았어야 한다. 이삭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첫 번째 바라크와 전혀 다른 것을 다시 베풀어 줄 필요가 없다(28:3-4).

반면에 내용의 차이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정일승은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28:3-4)가 첫 번째 것(27:27-29)과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sup>52)</sup>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가장의 바라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일승의 견해는 차이점을 지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 속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프레데임(Terence E. Fretheim)은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와 두 번째 바라크는 내용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는 보편적인 현실의 바라크이며, 두 번째는 '아들, 땅, 많은 후

46) 코터(David W. Cotter)와 프레데임(Terence E. Fretheim)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Cotter, *위글*, 205-206; Fretheim, *위글*, 282.

47) 로스, *위글*, 708.

48) 웬함, 『WBC 창세기 1-15』, 491.

49) 클라우스 베스터만, 『성서와 축복』 (장일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87. 원제는 C. Westermann,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50)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어느 아들보다도 더 길게(유다: 55 단어, 요셉: 61단어) 바라크를 베풀어 준다.

51) *위글*, 87.

52) Chung, *위글*, 156.

손, 민족성'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바라크라고 말하고 있다.<sup>53)</sup> 이삭의 두 번째 바라크가 땅과 많은 후손을 포함하고 있다는 프레데임의 견해는 정확한 지적이지만, 이것이 첫 번째 바라크와 다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비록 내용면에서 다르고 일반은 총적인 바라크와 특별히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바라크가 함께 주어졌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는 바라크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바라크와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의 주체로서 엘 샤다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 샤다이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바라크를 베풀 때 언제나 앞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둘째,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바라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육'과 '번성'을 위한 근거가 되는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다(15:5; 17:1-8; 22:17-18). 이는 이삭 자신이 받은 것과도 같다(26:3-4). 그리고 이 언약 속에 포함된 후손과 땅에 대한 바라크는 그들의 당대에만 그것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성취는 그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이다. 하지만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는 가장 중요한 생육과 번성을 위한 근거가 되는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더욱이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는 미래에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가 직접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들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를 수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바라크의 주체는 이삭이

며, 그 객체는 비록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가 아닌 에서이다. 이삭은 가장으로서 큰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바라크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삭이 에서에게 차선으로 베풀어준 바라크 역시 단순히 에서가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더욱이 후손에 대한 것과, 땅에 소유권에 관한 것도 없다. 단지 야곱이 가로챈 바라크를 대신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바라크 수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 (2) 동사의 형태

27장 27-29절에서 바라크의 수혜자에게 사용되는 동사들은 주로 칼(Qal)형이다. 28절의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된 ‘וַיִּתֵּן’ (비이텐)은 동사 ‘נָתַן’ (나탄)의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29절의 “만민이 너를 섬기고”에서 “섬기고”로 번역된 ‘וַיַּעֲבֹדְךָ’ (야아브두카)는 ‘עָבַד’ (아바드/섬기다, 일하다)의 ‘칼 미완료, 3인칭 복수형’이며,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에서 “되고”로 번역된 ‘וַיְהִי’ (헤베)는 ‘הָיָה’ (하야/되다)의 ‘칼 명령, 남성 단수형’이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칼형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에 주어진 바라크에서 사용되었던 히필형과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동사는 그 어떤 것도 사용되지 않았다.

27장 39-40절에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 역시 주로 칼형이며 히필형이 한 번 사용된다. 39절의 “땅의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에서 “있을 것이다”로 번역된 ‘וַיְהִי’ (이호예)는 ‘הָיָה’ (하야/이다, 되다)의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40절의 “너는 칼을 밟고 생활하겠고”에서 “생활하겠고”로 번역된 ‘וַתְּחַיֶּה’ (티호예)는 ‘חָיָה’ (하야)의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이며, “네 형제를 섬길 것이며”에서 “섬길 것이며”로 번역된 ‘וַתַּעֲבֹד’ (타아보드)는 ‘עָבַד’ (아바드)의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그 멩에를 떨쳐버리라”에서 “떨쳐버리다”로 번역된 ‘וַתִּפְרֹקֵהָ’ (우파라

53) Fretheim, 윗글, 282.

크타)는 'קָטַף'(파라크/잡아채다, 벗기다)의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히필형으로 사용된 것은 “네가 방랑을 하다가”에서<sup>54)</sup> “방랑하다”으로 번역된 'קָטַף'(타리드)이다. 이는 'רָדַף'(루드/방랑하다, 배회하다)의 '히필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여기서는 칼형과 함께 히필형이 한 번 사용되지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났던 형식인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는 사용되지 않는다. 비록 히필형이 나온 유사점이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사용되었던 것과는 다르며, 그것의 주체 역시 엘 샤다이아 아니다.

이 두 바라크 사건에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는 아브라함 언약 바라크(17:1b-8)에서 사용되었던 동사의 형태와 다르다. 더욱이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동사가 없다. 따라서 이 두 바라크의 성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바라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2) 28장 3-4절의 바라크 수여의 주체와 동사의 형태

### (1) 바라크 수여의 주체

본문은 형의 보복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두 번째로 바라크를 베푸는 장면이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첫 번째 바라크(27:27-29)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고, 이삭의 에서에 대한 바라크(27:39-40)와도 다르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용이 다르거나<sup>55)</sup>,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를 확증하는 것이라거나<sup>56)</sup>, 야곱이 아브라함의 바라크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을 깨

54) 개역개정은 “네가 매임을 벗을 때”로 되어 있다. “매임을 벗을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קָטַף קָטַף קָטַף”이다.

55) 월함, 『WBC 창세기 16-50』, 394; Steinmetz, 『원글』, 98.

56) Fokkelman, 『원글』, 234.

닫는 것<sup>57)</sup>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삭의 두 번째 바라크는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모두 다르다.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집을 떠나야만 하는 야곱에게 이삭은 그에게 처음 속아서 주었던 것(27:27-29)과는 전혀 다른 것을 베풀어준다. 이 바라크의 가장 큰 특징은 구절의 시작에 있다. 히브리어 구문에서 문장의 제일 첫 머리에 오는 단어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문의 시작은 ‘엘 샤다이’이다. 이 호칭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살펴보았듯이 후손과 땅에 관련된 약속에 항상 사용된다(17:1, 28:3, 35:11, 48:3). 이 구절이 엘 샤다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바라크의 내용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것이며, 그가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의 주체는 아브라함(17:1)과 같이 ‘엘 샤다이’라는 것이다. 이 호칭은 처음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 한 이래로 여기에서와 창세기 35장 11절, 그리고 창세기 48장 3절에서 후손과 관련된 구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 샤다이는 다음에 살펴볼 같은 문맥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의 연속적인 사용과 함께 쌍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고 그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2) 동사의 형태

아브라함 언약에 주어진 바라크의 형식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엘 샤다이와 히필형 동사의 사용에 있다.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적인 형식이 사용된다. 특히 아브라함 언약에

57) 로스, 『원글』, 712.

서 사용되었던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 **פָּרַח**(파라)와 **רָבַח**(라바)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구절 속에는 히필형 동사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족장에 대한 언약 속에 히필형 동사가 사용된 곳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17:2, 6; 22:17), 이삭에 대한 언약(26:4), 야곱에 대한 언약(28:3, 48:4)이다.

위의 본문들 가운데 **פָּרַח**(파라/열매를 맺다)와 **רָבַח**(라바/배가 되다) 동사가 히필형 **פָּרַח**(아프리카)와 **רָבַח**(아르베카)로 사용되었다. 히필형 동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역(使役)’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필형 동사를 사용하여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17:2),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17:6)라는 언약을 주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26:4)’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도 동사 **רָבַח**(라바)의 히필형인 **וַיִּרְבֵּחַ**(버히르베이트/번성하게)<sup>58)</sup>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동사의 형태는 26장 24절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sup>59)</sup>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집을 떠날 때(28:3)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즈음 그의 회상에서도 사용된다(창 48:4).

이와 같이 야곱에 관한 두 본문에 등장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가 **רָבַח**(라바)와 **פָּרַח**(파라)의 히필형이다. 28장 3절에서는 **רָבַח**(라바)와 **פָּרַח**(파라)가 ‘히필 미완료, 3인칭 단수 + 2인칭 남성 대명사 접미사’가 붙은 형태인 **יִפְרַח יִרְבֵּחַ**(아프리카 아르베카)로 사용된다. 이를 직역하면 ‘그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가 너를 많이 할 것이다’이다. 더욱이 28장 3절의 주어로 사용된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은 17장 2, 6절과 48장 3절의 주어로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과 동일하다. 48장 4절에서 **פָּרַח**(파라)는 ‘히필 분사, 남성 단수 + 2인칭 남성 대명사 접미사(목적격)’가 붙은 형태인 **מִפְרָח**(마프레카)로 나타나고, **רָבַח**(라바)는 ‘히필 완료, 1인칭 공성 단수 + 2인칭 남성 대명사 접미사(목적격)’가 붙은 형태인 **הִרְבִּיתִּי**(히르비티카)로 사용된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너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며<sup>60)</sup> 내가 너를 많이 할 것이다’이다. 중요한 것은 위의 본문에서 사용된 특징인 히필 동사의 주어가 다 ‘엘 샤다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엘 샤다이가 주어인 히필형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루겠다는 것(하나님의 사역행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2장 17절에서는 **רָבַח**(라바) 동사의 ‘히필 부정사’와 ‘히필 미완료형’을 연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지만(46:27), 출애굽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출 1:7). 모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했으므로”(신 1:10)에서 **רָבַח**(라바)의 ‘히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 **הִרְבָּה**(히르바/‘그가 많아지게 했다’)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를 늘어나게 하였음을(시 105:24)<sup>61)</sup> 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의 사용은 ‘엘 샤다이’와 쌍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바라크가 베풀어질 때 사용되는 형식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는 아브라함 언약에 주어진 바라크와 동일선상에 있

58) 동사 **רָבַח**(라바)의 바브 계속법, 히필 완료, 1인칭 단수,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59) 26:24의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에서 ‘번성하게’가 26:4와 똑같이 **וַיִּרְבֵּחַ**(버히르베이트) 쓰였다.

60) 히필 분사형의 독립적 용법으로 쓰였다. ‘내가 너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고’이다.  
61) 여기서 ‘번성하게 하사’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פָּרַח**(파라/열매를 맺다)의 바브 계속법,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 **יִפְרַח**(아에페르)를 번역한 것이다.

으며, 하나님 언약의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바라크의 내용

### 1) 27장 27-29절과 39-40절의 바라크 내용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바라크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에 있다. 27장 27-29절의 바라크 내용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 풍성한 곡식과 신선한 포도주, 열국의 섬김과 굴복을 받는 것, 형제들의 주(יְבוּרָה, 거비르)가 되는 것, 어미의 아들이 굴복하는 것,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으며, 이 바라크를 받는 자가 당대에 받기를 소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땅에 대한 것도 소유권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단지 그들이 살 곳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일 뿐이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바라크의 내용은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라크의 특징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성에 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하면서 약속했던 땅(출 4:8)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땅이었다(창 15:18-21).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약의 영원성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일관되게 베푸는 바라크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이다. 많은 후손들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에 관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

과 땅에 대한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삭은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이 택한 자와 상관없이 없는 큰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리브가의 방해로 야곱에게 베풀어졌으며, 실제로 이 내용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서 이루어진다.<sup>62)</sup>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바라크일 뿐이다.

39-40절의 에서에 대한 바라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해석적인 경향을 보인다. 39절에 사용된 מִיִּשְׁמַנֵּי(미쉬마네)이, מִן[민]+יִשְׁמַנֵּי(샤만)와 מִן[민]+מִן[탈]이라는 용어에서 전치사 מִן(민)에 대한 해석을 ‘away from 또는 far from’(~로부터 먼)으로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부정적이 되며, 반대로 ‘from’(~로부터)의 의미를 지닌 ‘of’로 해석을 하면 그 내용이 긍정적이 된다.<sup>63)</sup>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어떠한지 간에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 바라크는 이삭이 에서에게 차선으로 베풀어준 바라크이다. 이미 최선으로 베풀어준 야곱이 가로챈 바라크에도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으로 베풀어진 바라크에 이것이 언급될 리가 없다. 더욱이 후손과 땅의 소유권은 이미 받을 자가 하나님에 의해 야곱으로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어질 바라크의 내용을 이삭이 임의로 그 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삭이 베풀 27장에 나타난 두 번의 바라크의 내용 가운데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것은 그가 임의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는 바라크를 빌어준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그럴 의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으로서 베풀어야 할 일반적이고 보

6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학위논문을 참조하라. 모창조, “창세기 27:1-28:4의 바라크(בָּרַךְ) 연구”, 133-145.

6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학위논문을 참조하라. 윗글, 145-150.

편적인 바라크를 주었을 뿐이다.

## 2) 28장 3-4절의 바라크 내용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에서는 땅의 소유권과 후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프레데임은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가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인 ‘아들, 땅, 많은 후손, 민족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sup>64)</sup> 코터는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때는 수많은 후손과 땅의 소유가 포함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한다’<sup>65)</sup>고 한다. 프레데임과 코터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함으로써 이삭의 첫 번째 바라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들의 지적은 옳은 것이지만 단지 복의 내용에 있어서 일치 여부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일승은 28장 1-4절의 이삭의 바라크 속에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그 가운데 후손과 땅의 소유권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는 단지 ‘아버지의 소망’으로 보고 있다.<sup>66)</sup> ‘아버지의 소망’이란 의미는 이삭 자신이 야곱에게 빌어준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이 바라크의 성취의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이들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사용된 바라크의 특징적인 형식인 ‘엘 샤다이’와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언급이 없다. 엘 샤다이와 히필형 동사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는, 많은 후손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4) Fretheim, 윗글, 282.

65) 코터는 이 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두 번째 복(추가적인 supplementary)은 앞선 복을 반복한 사족으로 보아 최종 편집자가 이를 여딘가에는 쓰고픈 마음에 여기에 추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나머지가 완성도 높은 예술적 표현으로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자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 무언가를 삽입했을 것 같지는 않다. 본문을 여기에 둔 까닭은 이삭이 야곱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증이며, 여기서 나타난 축복은 이전의 포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잇는 축복을 공식적으로 요약한 것이라야 옳다.” Cotter, 윗글, 205-206.

66) Chung, 윗글, 163.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바라크는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어만 했고,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새롭게 그것을 배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증거로 집을 떠난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그에게 언약을 한다. 그 언약의 서두에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28:13)이다.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자에게 언약을 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배풀어 주었던 바라크와 똑같은 ‘후손’에 대한 언약(“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될 것”[28:14])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크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진다.<sup>67)</sup> 이 바라크는 엘 샤다이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으로 또 다시 확인 되며(창 35:11-12),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창 48:3-4). ‘후손’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언약은 ‘엘 샤다이’와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히필형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창 47:27; 출 1:7; 3:8).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망과는 전혀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였고(신 1:10),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선언한다(신 6:23).

이와 같이 이삭의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바라크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을 거쳐 야곱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형식과 내용들이 반복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후손에 대한 언약은 이

67) 여기서 ‘엘 샤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 야곱의 회상에서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창 48:3).

집트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창 47:27; 출 1:7; 신 1:10), 땅에 대한 소유권은 출애굽의 목적지와 모세의 고백에서 확인 할 수 있다(출 3:8; 신 6:23).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푼 바를 비교하면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순서 | 본문                | 형식                      |                    | 내용 |        |
|----|-------------------|-------------------------|--------------------|----|--------|
|    |                   | 바라크 주체<br>(엘 사다이 & 여호와) | 히필형 동사             | 후손 | 땅의 소유권 |
| 1. | 17:1b-8<br>(아브라함) | ○                       | ○                  | ○  | ○      |
| 2. | 26:3-4<br>(이삭)    | ○                       | ○                  | ○  | ○      |
| 3. | 27:27-29(야곱)      | ×                       | ×                  | ×  | ×      |
| 4. | 27:39-40<br>(에서)  | ×                       | ×/○ <sup>68)</sup> | ×  | ×      |
| 5. | 28:3-4<br>(야곱)    | ○                       | ○                  | ○  | ○      |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1, 2, 5'와 '3, 4'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면에서 전자는 바라크 주체로서 엘 사다이와 여호와가 나오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동사의 형태에 있어서도 전자는 모두 히필형 동사를 사용하지만, 후자는 칼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자는 후손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제시되지만 후자는

68) 히필형 동사가 사용되지만, 이 단어가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는 바라크의 형식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지만, 후자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삭의 야곱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27:27-29)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장자인 에서에게, 두 번째 바라크(28:3-4)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 주고자 한 것으로서, 두 바라크는 주체와 수혜자 및 형식과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게 한다. 이삭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으며,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족장인 이삭은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바라크와 동일한 것을 전달해야만 했다. 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몫을 먼저 베풀어 주고자 하였으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바라크와 차자의 몫을 베풀어주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리브가에 의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의 보복을 피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는 아브라함 바라크를 줌으로써 그가 원했던 계획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이삭은 자녀에 대한 편애나,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돌아갈 바라크를 에서에게 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 5. 참고문헌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창세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김재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제31집 (2009년 3월), 52-72.

모창조. “창세기 27:1-28:4의 바라크(ברק) 연구”, 서울 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왕대일. “다시 읽는 야곱 이야기 (창 25:19-36:43): 그 구조와 의미”, 「구약논단」 제4집 (1998년 봄), 5-40.

유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제23집 (2007년 3월), 101-117.

정석규. 「구약성서로 읽는 갈등과 화해」 (서울: 한들출판사, 2010).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버나드 앤더슨, 「구약신학」 (최종진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2), 178. 원제 Anderson, Bernhard W., *Contour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월터 브루거만, 「성경이 말하는 땅」 (정진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70. 원제 Brueggemann, Walter.,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2).

제임스 쿠겔, 「고대 성경 해석가들이 본 모세오경」 (김은호/임승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45-280. 원제 Kugel, James L., *The Bible As It Wa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_\_\_\_\_, 「야곱의 사다리」 (변순복/유지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25-49. 원제 \_\_\_\_\_, *The Ladder of Jacob*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마틴 노트, 「오경의 전승사」 (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112-144. 원제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W. Kohlhammer GmbH., Stuttgart, 1948).

폰 라드, 「국제성서주석 창세기 1」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92, 381. 원제 Rad, G. von.,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알렌 로스, 「창조와 축복」 (김창동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451. 원제 Ross, Allen P., *Creation and Blessing* (Michigan: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 1993).

부르스 월트키, 「구약신학」 (김귀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374-5. 원제 Waltke, Bruce K.,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고든 웬햄, 「WBC 창세기 1-15」 (박영호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523, 526. 원제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Texas: Word Books, 1987).

\_\_\_\_\_, 「WBC 창세기 16-50」 (윤상문/황수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325. 원제 \_\_\_\_\_, *Genesis 16-50. WBC 2* (Waco, Texas: Word Books, 1987).

클라우스 베스터만, 「성서와 축복」 (장일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87. 원제 Westermann, C., *Blessing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_\_\_\_\_, 「창세기」 (강성열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8), 264. 원제 \_\_\_\_\_, *Genesis* (J. H. Kok Publishers, 1986).

Bar-Efrat, Shimon.,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9.

Brisman, L., *The Voice of Jacob-On the Composition of Genesis*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Chung, Il-Seung., *Liberating Esau: A Corrective Reading of the Esau-Jacob Narrative in Genesis 25-36*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2008).

Coats, G. W.,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FOTL I; Grand Rapids: Edermands, 1983).

Cotter, David W.,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3).

Fokkelman, J. P., *Narrative Art in Genesis*, (Assen: The Almond Press, 1975).

Fretheim, Terence E., "Which Blessing Does Isaac Give Jacob?," in *Jews, Christians, and the Theology of the Hebrew Scriptures*. Edited by Alice Ogden Bellis and Joel S. Kaminsky. (SBL Symposium Series 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Gunkel, H., *Genesis, uebersetzt und erklaert* (HKA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0).

Hendel, Ronald. S., *The Epic of the Patriarch-The Jacob Cycle and the Narrative Tradition of Canaan and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7).

Kaminski, C. M., "The Promises to the Fathers," in *Basics of Biblical Hebrew Grammar* Second Edition by Gary D. Pratico & Miles V. Van Pelt (Grand Rapids: Zondervan, 2007).

Rendsburg, G. A.,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6.

Sarna, N. M.,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Steinberg, Naomi.,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3).

Steinmetz, Devora., *From Father to Son: Kinship, Conflict, and continuity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Grandrapids, 2001.

Westermann, C.,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검색어

엘 샤다이  
 히필형 동사  
 후손  
 땅의 소유권

## A Study on Isaac's בָּרַךְ

(Gen 27:27-29, 39-40; 28:3-4):

In Comparison with His Abrahamic Covenant in Gen 17:1b-8

Chang-Jo Mo, Th.D.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Isaac's בָּרַךְ (Gen 27:27-

29, 39-40; 28:3-4), with reference to *šrb*'s forms and connotations in the Abrahamic covenant (Gen 17:1-22), in order to offer a refreshing perspective on these in Isaac's *šrb*. The term *šrb* in the Abrahamic blessing has its own particular form and content. Specifically, it is used with 'El Shaddai,' one of the divine names, as a subject who transmits blessings, and also with verbs in a Hiphil form with 'life-giving and life-enhancing' connotations in the context of 'descendants' and 'ownership of the land.' They appear as typical elements when the Divine promises blessings to the chosen patriarchs.

In Gen 27:1-28:4, Isaac also gives *šrb* to his sons in three cases (27:27-29, 39-40; 28:3-4). However, the first two do not employ the typical elements with which the Divine transfers blessings to the patriarchs. For example, 'El Shaddai,' the fundamental subject of blessings, doesn't appear, nor are the 'Hiphil verbs' used with the life-giving and life-enhancing connotations, still less in the context of 'descendants.' Concerning the 'land,' Isaac wants his land to become fertile and fruitful, but he never refers to ownership.

In contrast, the third blessing (28:3-4) of Isaac shows the typical elements, just as in the Abrahamic covenant. Firstly, the divine name, 'El Shaddai,' and the Hiphil verbs are adopted. Secondly, 'descendants' and 'ownership of the land' are mentioned as well. Therefore, his last blessing(28:3-4) is not the least similar to the first two (27:27-29; 27:39-40) in form and content. In other words, Isaac as a head of household gives normal blessings to his sons in the first and second occasions. Yet to Jacob, the divinely-elected patriarch, Isaac conveys the Abrahamic blessings in the last *šrb*.

This study invites us to reconsider the decisions and actions of Isaac.

Isaac cannot be considered passive because he is well aware of the role he plays and makes every effort to do so. As one of the patriarchs of Israel chosen by God, he has to transmit *šrb* corresponding to that of Abraham over to Jacob who will be in the same status. Meanwhile, Isaac intends to bless Esau because he deserves the firstborn's share, even though he cannot enjoy the Abrahamic blessings. On the other hand, Isaac intends to transmit to Jacob not just Abraham's *šrb* but also the lot of the second son. On the face of it, this plan seems to be frustrated by Rebecca, but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In fact, his initiative comes to fruition by transferring Abraham's blessing to God's predetermined son when Jacob flees to Haran until his brother's fury lessens. So it is not likely that Isaac denies God's will in intending to convey the divinely determined blessing to Esau. Rather, he tries his best not only to play his role as an agent of the divine covenant but also to maintain the peace of his home.

### Keywords

El Shaddai  
Hiphil verbs  
descendants  
ownership of the land